

근로복지공단, 장애학생 방학 중 교육·돌봄 공백 해소 나서

- 장애학생 계절학교 ‘달팽이학교’에 후원금 300만원 전달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승흡)은 울산 지역 장애학생들의 방학 중 교육·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알찬 방학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10월 12일 장애학생 계절학교 ‘달팽이학교’에 후원금 30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달팽이학교’는 울산 지역에 거주하는 학령기 장애학생 및 특수교육대상자를 대상으로 방학 동안 교육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후원금은 ‘달팽이학교’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고 장애학생들이 방학 중에도 지속적인 교육과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활용될 예정이다.

‘달팽이학교’에 참여하는 장애학생들은 미술·공예·베이커리·체육활동을 비롯해 농업체험, 문화예술 관람, 지역 명소 방문 등 다채로운 지역사회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이를 통해 자기주도적인 자립 역량을 키우고 다양한 사회적 경험을 넓힐 예정이다.

또한 방학 기간에는 장애학생을 둔 가정의 돌봄 부담이 증가할 수 있는 만큼, ‘달팽이학교’ 운영을 통해 학생들에게 안전한 교육·돌봄 환경을 제공하고 보호자가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박승흡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방학 동안 장애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다양한 체험을 하며 건강하게 성장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지원하는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안전윤리경영본부 윤리사회공헌부	책임자	부장	김찬규 (052-704-0601)
		담당자	팀장	박준호 (052-704-0605)

